



스님의 릴레이 시위

월드컵 열기가 한반도를 뒤덮던 지난해 6월 13일,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무참히 짓밟혀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 대다수의 언론은 침묵했지만 사건은 가해자 2명이 자국민들만으로 구성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본국으로 가면서부터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국민은 분노했고 불교계에서도 각종 법회와 1인 시위, 3000천배, 단식기도 등을 봉행했다. 이런 움직임은 해를 넘어서도 이어져, 5일부터 불교인권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전까지 반미시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최루탄과 화염병이 머릿속에서 오버랩 됐었다. 그러나 1인 시위와 촛불시위를 비롯한 현재의 반미시위는 우리들의 분노를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출해내는 일종의 '평화운동'이다. 시위가 평화운동이기에 남녀노소가 찬바람을 맞으면서 거리로 나섰다. 스님을 비롯한 여러 종교인들도 동참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분노했으나 파괴하지 않았다. 다만 의견을 표출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여기에 대해 진관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 중 진(恨) 그 자체에 매몰될 때는 문제지만 현재 온 국민이 느끼는 분노는 '대승적'이라고 정의하고 '공분을 어떻게 대승적으로 승화시켜 표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수경스님은 "현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노할 때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동남아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와 같은 내재된 폭력에 대해서도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6개종단 연내 총본산 건립

수행·포교·교육·문화 아우르는 구심체 역할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관음종 등 6개 종단이 올해 들어 총본산을 건립한다. 총본산이란 행정기능 위주의 총무원과는 달리 수행, 교육, 포교, 문화 기능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종단의 구심체다. 따라서 총본산 건립은 행정과 수행 공간의 분리와 함께 수행 풍토 쇄신을 통한 수행 활성화 및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은 올해 말 총본산 역할을 하게 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완공을 계기로 정정수행가풍 진작에 나선다. 이는 총무원을 '종단본규의 진원지'에서 승재가의 화합과 수행공간으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한다는 의미다. 또 총본산 내에 마련될 박물관 공연장 등 각종 문화시설도 신도들의 신행 폭을 크게 넓힐 전망이다.

조계종 불교역사기념관 계기 수행가풍 쇄신

태고종 총무원 이전, 전통종단 위상 제고

진각종 연수·교육원 설치 밀교수행 중심지로

태고종은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종도의 힘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안으로 총무원 이전과 함께 총본산을 건립한다. 현재 봉원사와 법륜사가 총본산 후보지로 유력한 가운데 태고종은 이를 통해 전통종단으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진각종도 경주 산내에 소재한 오케이 그린목장 부지 35만평 매입이 완료되는 3월부터 수행총본산 건립에 착수한다. 진각종은 통리원 포교원 등 현 총무행정 센터는 그대로 두되, 총본산은 '밀교

수행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연수원과 교육원 등 스승과 교도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총본산에 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행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관음종은 현 총무원사인 묘각사를 총본산으로 확대하고 4~5월경 낙성식을 갖는다. 총본산은 선방과 수행자를 위한 방사를 대폭 확보해 신도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한국불교 법륜종도 수행과 교육의 중심도량이 될 총본산을 건

립한다. 총본산에는 강원과 울진, 영산법패 교육원, 사회복지법인 등이 들어선다. 총지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다 중단된 총본산 건립문제를 연내 결정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본산 건립이 대형불사를 고집하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행모델을 개발해 이를 검증하고 적용하는 것은 대형불사 보다 발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총본산 건립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건물 하나 더 짓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수행과 문화의 전문 영역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불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opia.com



'선재동자의 겨울여행' 지난 4일 조계사에서 1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잊혀져 가는 전통을 체험하는 '선재동자의 겨울여행' 수련법회가 열렸다. 사진은 발우공양을 하며 공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 사회복지 마당 넓힌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계 주요종단이 새해 자원봉사자 해외 연수, 호스피스 봉사, 미아찾기 등 새로운 복지사업에 나선다.

특히 이들 복지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주력해온 데서 벗어나 복지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불교 복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관 14개, 장애인 복지시설 6개 등 83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해외 연수 기회를 적극 늘릴 계획이다. 사회복지재단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자원봉사자들이 일본과 유럽의 선진 복지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3면으로 이어짐 >

동국대 15대 총장 9일 선임

관노갑 이사 후임도, '추천교수' 수용 관심

동국대 차기총장을 선임하는 동국학원 제189회 이사회가 9일 오전 11시 신라호텔 에프와르 연회실에서 열린다. 안건은 동국대 제15대 총장선임의 건과 권노갑 씨 후임이사 선임의 건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제15대 총장은 일산병원의 원만한 개원과 개교 100주년(2006년)을 3년 남긴 시점에서 학풍의 쇄신과 각종 교류사업 등을 통한 중

립학교로서의 면모 일신이라는 산적한 과제를 가장 원만하게 성공시켜 낼 인사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동국대의 차기 총장선출과 관련된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지난해 10월 20일 투표로 선출하여 법인에 추천한 후보는 홍기삼(국문과), 조희영(경영학과), 정병조(국문학과)교수다. 그러나 동국학원이 교수회와 교직원회가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서 차기 총장을 선임할 것인지 아직 미지수다. 재단 정관상 반드시 교수회나 교직원회의 추천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의외의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동국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정대승은 2일 정각법당에서 열린 시무사에서 "질적 발전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줄대기 풍토를 없애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교수를 뽑아 학교의 부흥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북한산 관동도로 백지화

불교계, 공약실천 촉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북한산 관동도로 백지화 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동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일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센터를 방문, 백지화 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연석회의는 의견서에서 "백지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서울의과관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전면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4면 증면 32면 발행합니다

뉴스정보 강화·종단 페이지 신설 16+16 섹션제체 강화, 읽을거리 가득

지난해 10월 불교계 신문으로는 처음 섹션 신문을 시도한 데 이어 올해에는 28면에서 32면(A 16면, B 16면)으로 증면합니다.

'섹션 A'는 뉴스와 정보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종단면을 신설하고 지역면을 2개 면으로 늘려 전국 불교 현장의 생생한 소리들을 생생히 전합니다.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의 장인 기획면은 불교계의 대사회적 참여에 가교가 될 것입니다. '섹션 B'에는 만화, 교리 퍼즐, 회화극본 '부처님 일대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면에 모셔온 큰스님들의 가르침은 '지상백고좌'라는 이름으로 이어갑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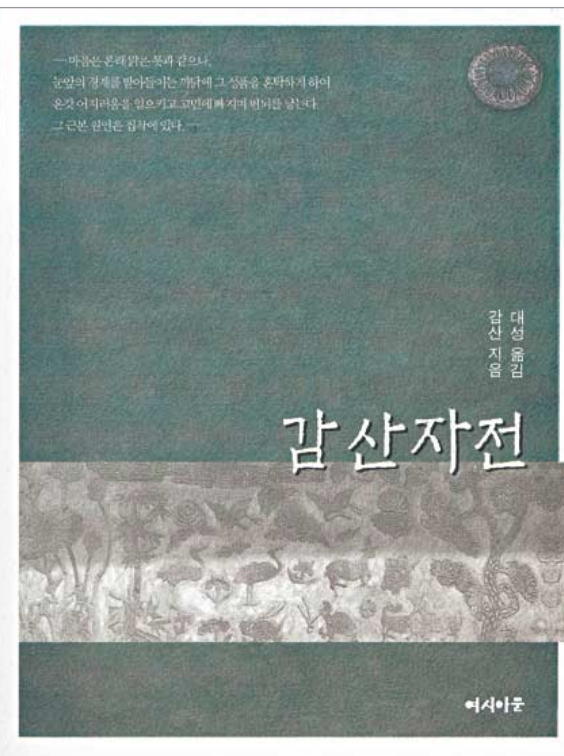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8-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남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향성극락이아소서
031)948-4440
인골도매인·남골당

즐거운 불교공부...만화·퍼즐 21면

김산대서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김산노인자서연보실록 金山人自序年譜實錄」으로, 김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분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은이 **김산** (金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익 지옥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差會를 열어 법을 설하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龍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오지』와 『방편개시』(역시아란)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권선서적들을 '아루나잘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